

겸재 정선과 진경시대

유 봉 학(한신대 명예교수)

1.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진경문화’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 숙종 2년 - 1759 영조 35년)은 80여 년 생애에 걸쳐 ‘진경산수화’를 완성하였고, 동료 지식인 예술가들과 함께 조선 문화예술의 신경지를 개척한 인물이다.

오늘날 우리는 겸재의 진경산수화와 함께 등장한 풍속화 등 ‘동국진경(東國眞景)’ 회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유행했던 ‘동국진체(東國眞體)’의 서풍과 ‘진경시문풍(眞景詩文風)’ 등 조선 특유의 개성적 문예를 포함한 문화 전반을 ‘진경문화(眞景文化)’라 지칭하고, 그 유행을 지표로 삼아 숙종(1674-1720) 영조대(1724-1776) 이후 정조대(1776-1800)까지 100여 년에 걸치는 시대를 ‘진경시대’라 부르고 있다.

진경시대를 이끌었던 진경문화는 당대 지식인 예술가들의 새로운 생각과 그 예술적 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필두로 하여 나타났다. 그 저변에는 급변하던 조선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 연구를 통한 대안 모색이 전제되어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진경문화와 궤를 같이하며 등장한 이 새로운 학문 활동과 사상적 모색을 ‘실학(實學)’이라 규정한다.

진경시대의 진경문화와 실학 연구를 주도한 인물들은 양반사족 지식인, 그 중에서도 이른바 ‘경화사족(京華士族)’ 지식인들이었다. 숙종대 이후 조선사회의 전면적 변동과 함께 서울의 도시적 발전이 두드러진 사회현상이 되면서, ‘경(서울 경기지역)-향(지방)의 사회적 분기 현상’이 야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경기 지역을 생활 근거로 하는 사족층, 곧 ‘경화사족’이 대두하여 조선 정계와 학계 문화예술계를 이끌며 새로운 학문과 문화 예술 사조를 창출하게 된 것이다.

겸재 정선은 이들 경화사족 지식인의 일원으로서 회화 분야의 혁신을 이끌

었다. 그의 예술 창작 활동은 경화사족 지식인들의 학문적 사상적 영향 속에 배태되어 ‘진경산수화’라는 화려한 꽃을 피워내었고, 진경문화를 선도하여 후대의 학문과 예술에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된다.

2. 조선후기 경-향의 분기와 경화사족

조선전기에 여러 차례 사화(士禍)를 겪으며 향촌사회로 몰려났던 사림(士林)이 급기야 중앙정계에서 훈척(勳戚)세력을 꺾고 조선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선조대(宣祖代, 1567-1608) 이후의 일이었다.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 이래 사림들은 중앙에 진출하여 주자학을 이념적 바탕으로 학문정치(學問政治), 공론정치(公論政治)를 특징으로 하는 사림정치(士林政治)의 시대를 열었으며 사회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조선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兩亂)의 국가적 위기를 맞았음에도 전국 각처 사림들의 적극적 역할로 이를 수습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이 시기 사림은 향촌에 머물던 재야 산림학자의 지도를 받으며 각처의 서원(書院)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주자학적 이상사회와 예치(禮治)의 질서를 추구하였다. 이에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질서와 삶의 방식이 정착해 가고 사림 중심의 문화가 본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가 하면 중원에서 오랑캐 청(淸)이 정통 중화왕조 명(明)나라를 멸망 시킴으로써 야기된 국제질서의 변화와 병자호란 이후 고조된 조선 내부의 북벌대의론(北伐大義論)과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 등은 조선이 곧 중화(中華)라고 하는 조선중화의식(朝鮮中華意識)을 성립시켜 조선의 문화자존의식(文化自尊意識)을 강화시키게 되었고 자기 문화에 대한 자신감, 자존심이 이후 학문과 문화예술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이들의 문화적 자신감은 양란 이후의 급속한 경제적 부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숙종년간(1674-1720)은 양란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조선이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 이 시기 조선사회는 생산력 증대와 유통경제 발달을 배경으로 양란 이후의 위기감에서도 서서히 벗어나며 역동적 변화를 보이게 된다. 특히 청나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삼각 중개무역으로 경제적 부흥

을 이루면서, 국제무역로를 따라 중국 일본과도 연결되었던 서울(京華)은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서 커다란 도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에 서울 생활권(수도권)이 경기지역 일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향(京-鄕)으로의 사회적 분기(分岐)’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사람도 분화하여 서울과 교외의 경기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경화사족(京華士族)’ 층이 조선사회를 이끄는 새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기에 이른다.

인구 20여만이 집결한 대도시로서 서울에는 독특한 도시적 생활상이 성립하였다. 서울의 지식인 사회 일각에서는 조선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감 위에 청나라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해 갔다. 일부 경화사족 지식인들은 ‘중국에 잔존한 정통 중화문화의 선별적 수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청나라 문물을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로 조선사회와 문화의 변화 발전을 선도하였다.

이는 ‘경-향으로의 학계 분기’ 양상과도 짝하는 현상이었다. 남인 내에서 ‘경남(京南)’ 과 ‘영남(嶺南)’ 의 분기가 나타나 기호남인과 영남남인이 분기하였으며, 100여 년 간 진행되었던 노론학계의 호락논쟁 과정에서는 노론 경화사족들이 낙론(洛論)으로 결집하여 호서지역의 호론(湖論)에 대하여 점차 우위를 차지하여 갔다. 더욱이 영조대 이후 탕평정치를 주도하게 된 노론의 낙론에서는 산림의 문하 학자들이 관료학자로 전환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경 향으로의 분기 양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3. 경화사족이 주도한 진경문화

한국 전통문화의 개성적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진경시대(眞景時代)’는 경화사족층의 주도적 역할과 사상적 문화적 지향에 따라 정조대에 이르기까지 인상적 전개를 보이게 된다.

이들은 조선이 중화의 적통을 이었다는 조선중화의식과 조선전통문화에 대한 자신감 위에 중화문화의 연구와 계승 발전을 도모했다. 이를 위해 중국에 남아있는 중화문물과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으며, 숙종대 이후 경화사족 지식인들 사이에서 청나라를 통한 중국문물의 수용의 폭은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노소남북의 당색을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론에서는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과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을 계승한 낙론의 경화사족 지식인들, 그리고 남인에서는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과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를 잇는 경화사족 지식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김창흡, 이병연(李秉淵 1671-1751) 등 문사들에 의해 진경시문풍(眞景詩文風)이 창출되고, 그 일원이었던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이 진경산수화풍을 확립하며, 윤두서(尹斗緒)와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祐 1686-1761)이 조선적 풍속화풍을 정립하게 된다.

이후 이 흐름은 후배들에 의해 크게 확산되기에 이른다. 현재 심사정(玄齋 沈師正, 1707-1769)과 표암 강세황(豹巖 姜世晃 1713-1791),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 등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전개를 보인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등 동국진경(東國眞景) 회화, 노론의 양송체(兩宋體)와 곡운체(谷雲體) 등 서풍과 대비되며 나타난 옥동 이서(玉洞 李澈 1662-1723), 백하 윤순(白下 尹淳 1680-1741), 원교 이광사(員嶠 李匡師 1705-1777), 송하 조유흥(松下 曹允亨 1725-1799)으로 이어간 동국진체(東國眞體) 서예 등 개성적 문예의 창출은 경화사족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주자학적 명분론에 기초한 문화적 자신감(文化自尊意識)과 건실한 사의식(士意識) 위에 우리의 정서와 자연산천, 의관풍물(衣冠風物)을 재인식하여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문학과 예술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진경문화를 이끌던 경화사족 가운데 일부 진보적 학자와 지식인들은 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개방적 사고 위에 신분과 당색을 뛰어넘어 활발히 교류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른바 ‘실학’의 새로운 학풍을 이끌어 내었다. 성호 이익(星湖 李瀾, 1681-1763) 이후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등 일군의 남인과 소북계열 학자들은 물론, 소론의 경화사족 학자들, 그리고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 담헌 홍대용(湛軒 洪大容, 1731-1786) 등 연암일파(燕巖一派) 학자들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그들 간의 상호 교류 위에 기존 사상의 재정립과 학문 및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들은 조선의 전통문화와 문화자존의식을 존중하면서도 외래 문물의 수용을 통해 국제문화조류로부터 유리되어 낙후되어가던 조선사회와 문화의 혁신

을 도모하였다. 이들은 사회에 충만한 변화와 발전의 추세를 직시하고 가속화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이념과 문화의 혼란, 그리고 경향의 극단적 분기 현상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들은 경화사족의 생활을 직시, 반성하고 사회지도층으로서사의 책임과 역할을 환기시켰으며, 실용적 학문의 연구와 생산활동에의 주도적 참여를 촉구하면서 이른바 ‘실학’의 연구를 통해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달성하려 하였다. 급기야 이들은 정조대에 이르면 기존의 문화자존의식과 북벌대의론을 반성함으로써 북학(北學)을 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학(西學)을 수용하기도 하면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적극적 융합을 통하여 조선 사회와 문화의 혁신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이다.

4. 북학 서학의 수용과 새로운 문화예술

전통적 사상과 문화예술을 혁신하려는 경화사족 지식인들의 주체적 노력은 정조대(1776-1800) 문화의 다양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북학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조 문물과 학술이 들어오고 새로운 학풍과 문풍(新學, 新文)이 서울의 소장학자들 사이에 유행하게 되었다. 산림학자와 전통주자학의 사회적 영향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사회지도이념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런 변화에 민감하였던 경화사족층이 주자학 외에 서학과 서교(천주학) 등 이단적 사상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측면들이 문화예술 활동에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정조의 지원을 받으며 규장각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정조 측근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국왕으로서 이를 견제하려던 정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조년간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 문화적으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이를 토대로 한 혁신의 노력과 갈등이 함께 분출되었던 시기였다. 조선의 전통문화에 대한 엄밀한 재평가와 정리, 중국문화, 나아가 서구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이 이질적 요소들의 새로운 융합이 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서울에서는 서울만의 독특한 도시적 양상과 생활상이 성립하고 이제는 사족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며 경화사족을 자처하게 된 부류들의 사상적 문화

적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활경험과 정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도시적 삶과 생활경험을 노래하는 풍속문학과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이와 함께 주자학적 명분론의 규제를 뚫고 속태(俗態)와 색태(色態)가 서울과 경기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면모로 나타나 자유분방하게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는 농업과 상업의 발달과 생산력의 증대 추세를 가속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경화사족 학자들 사이에서 우선은 이를 선도해야 할 사(士)의 역할과 사의 학문에 대한 반성이 촉구되었다. 경향의 사회적 분기에 따라 확연히 절연되어 버린 서울과 수도권 도시적 생활과 향촌의 임원 생활,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경화사족의 학문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것이 진경문화와 궤를 같이했던 영-정조시대 ‘실학(實學)’의 지향성이었다.

5. 격동의 시대상과 역사적 과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여 간 진경시대는 전통적 토대 위에 새로운 학문과 사상,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경향성에 대한 포용과 융합의 노력이 경주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상적 문화적으로 혁신의 노력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그러나 후대에는 여러 사회세력과 경향성 사이에 잠복하였던 갈등이 분출되면서 경화사족의 진경문화는 위기에 봉착하고, 일면 급변과 조락의 조짐도 보이게 된다.

1800년 6월, 정조 서거 이후 정치적 격변이 몰아치는 가운데 조선 문화의 양상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었다. 외척 등 소수 경화거족(京華巨族)이 주도하는 세도정국의 전개로 사림정치가 파탄하고, 정치적 혼란이 초래되었으며, 탕평정국을 주도하였던 경화사족층이 분해되는 가운데 이들의 사의식과 현실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모든 것이 서울의 극소수 세도가와 경화거족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정치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정치를 이끌던 소수 경화거족에게서 민과 유리된 소비적이며 퇴폐적인 삶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서울과 지방, 그리고 지배층과 기층민의 분기와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 정치적 억압이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일각에서의 사회적 통합의 노력과 혁신의 의지를 퇴색시키는 가운데 북학과 서학을 수용하여 가던 부류 내에서도 그들의 위상 변화에 따라 다기한 입장이 표출되어 혼란이 가중되었다.

서울에 북학풍과 청나라 문물이 풍미하는 가운데 청조고증학과 문예가 유행하게 된다. 이제 진경산수화풍은 청조문인화풍에 서서히 밀려났으며, 문예에서는 속태(俗態), 색태(色態)의 통속성이 난만하게 추구되면서 인간 욕구의 자유로운 표출을 정당화하는 흐름이 노골화되면서 풍속화의 내용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된 이러한 양상은 주자학과 그 명분론, 그리고 문화자존의식 위에 수립되었던 진경문화와 예술의 퇴조를 초래하였다. 사상적 갈등이 극단화되었으며 민(民)의 동요가 심화되었던 이 시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도도한 물결에 휩싸이며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런 가운데 차원높은 대안을 마련하고, 외래문물과 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 사회체제와 문화를 창출하는 일이 우리사회와 문화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1) 1998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 2) 2001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 3) 2005 『한국문화와 역사의식』 신구문화사
- 4) 2013 『실학과 진경문화』 신구문화사
- 5) 1998 『진경시대』 1, 2 (공저) 돌베개